

치과보험 공부 하지 마라

정 기 흥 / 서울본치과

바야흐로 치과의 보험 전성시대다. 스케일링 연1회 보험을 필두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아동 청소년의 레진까지 치과계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치과는 비보험과”라는 예전 명제가 점점 사그라들고 조만간 “치과도 보험과”로 불려야 할 판이다.

치과 보험계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다. 바로 “전자차트”이다. 전자차트가 도입된 지는 이미 여러 해가 지났지만 최근 들어 전자차트 프로그램이 더욱 똑똑해지고 사용하기 쉽게 발전하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기존의 종이차트를 버리고 전자차트를 도입하고 있다. 전자차트를 경험해본 유저들의 긍정적인 후기와 입소문도 전자차트 확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전자차트와 청구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치과보험공부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원장이 진료 - 종이에 차팅 - 직원이 청구 입력”방식에서 “원장이 진료 - 전자차트에 차팅 및 보험청구”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과정이 단순화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공부도 원장과 직원이 모두 보험 공부를 해야 하던 시대가 지나고, 원장만 보험공부를 하면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 게다가 보험청구 항목을 누르는 것만으로 전자차트에 자동으로 차팅이 되고 이 과정에서 보험 청구를 가이드 해주고 오류까지 수정해줘서 보험공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판에 놓였다. 보험 청구가 이제 AI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본 강의에서는 편하게 변화하고 있는 치과 보험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여의도성모병원 보철과 수련
-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위원
- * 현,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위원
 -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
 - 서울본치과의원 원장